



천주교 의정부교구(<http://ucatholic.or.kr>) · 발행인 이기현 · 편집 홍보국 · 제797호 · 주소 11674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261(의정부동) 의정부교구청
· 전화 031-850-1400(대표), 850-1433-5(홍보국) · 팩스 850-1575 · 이메일 jubo@ujb.ucatholic.or.kr



6지구 - 풍동 성당

설립 2006년 9월 14일 전화 사무실 031-965-0211,2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숲속마을로 49-69

제1독서 사도 5,27ㄴ-32,40ㄴ-41

화답송 시편 30(29),2와 4.5-6,11-12과 13ㄴ(◎ 2ㄱㄴ 참조)

◎ **주님, 저를 구하셨으니 당신을 높이 기리나이다.**

또는

◎ **알렐루야.**

- 주님, 당신을 높이 기리나이다. 당신은 저를 구하시어, 원수들이 저를 보고 기뻐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주님, 당신이 제 목숨 저승에서 건지시고, 구렁에 떨어지지 않게 살리셨나이다. ◎
- 주님께 충실한 이들과, 주님께 찬미 노래 불러라. 기록하신 그 이름 찬송하여라. 그분의 진노는 잠시 뿐이나 그분의 호의는 한평생이니, 울음으로 한밤을 지새워도, 기쁨으로 아침을 맞이하리라. ◎

○ “들으소서,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저의 구원자 되어 주소서.” 당신은 저의 비탄을 춤으로 바꾸시니, 주 하느님, 영원히 당신을 찬송 하오리다. ◎

제2독서 묵시 5,11-14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만물을 지으신 그리스도 부활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셨네. ◎

복음 요한 21,1-19 또는 21,1-14

영성체송 요한 21,12-13 참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와서 먹어라.” 하시며, 빵을 들어 그들에게 주셨네. 알렐루야.



사랑 연습



김명식 사도요한 신부
운정 부주임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은 하느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세상의 끊임없는 조건의 사랑 안에서 살아간다. 그리스도인은 하느님의 자녀로서 하느님의 나라에서 살기도 하지만 세상에서도 산다. 그렇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느님 사랑과 세상의 사랑 사이에서 갈등을 겪으며 살아간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서는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다. 베드로는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하고 대답하면서 예수님께 사랑의 고백을 한다. 오늘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서는 나에게도 물으신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데 예수님의 이 질문에 선뜻 “예수님, 제가 당신을 사랑하는 줄을 당신께서 아십니다.”라고 베드로처럼 대답할 수 없다. 주저하고, 외면하고, 모른척한다. 그런 나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신다.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예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이기 때문이다.

세상도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세상의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과 다르다. 우리에게 조건을 제시하며 사랑한다고 말한다. 얼굴이 이쁘고 잘 생기면, 공부를 잘하면, 돈이 많으면,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 권력이 높으면 우리를 사랑하겠다고 말하면서 조건을 제시한다. 세상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조건들을 채우며 살아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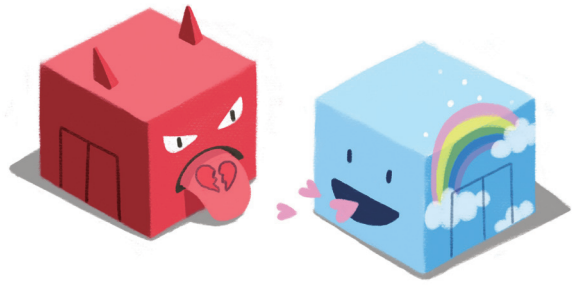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느님의 사랑을 쫓으며 살아가는 것이 궁극적인 행복을 얻는 길임을 믿기에 궁극적인 행복을 얻기 위해서 궁극적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갈구하며 살아간다. 궁극적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길은 무엇일까? 기도이다. 기도는 “너는 나를 사

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예수님과 대면하는 것이다. 기도는 기도를 시작하기 전부터 시작된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예수님과 대면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의 시간을 내어드리는 것부터 기도는 시작된다. 그리고 나의 몸과 마음과 정신을 예수님 앞에 내어드리고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예수님께 대답하기 위해서 예수님과의 추억, 하느님의 말씀을 묵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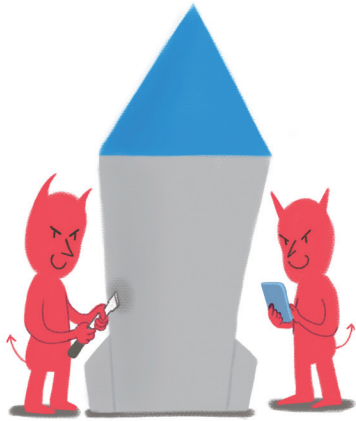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이 질문에 선뜻 대답하지 못해도 괜찮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시간을 내어드렸고, 몸과 마음과 정신을 봉헌하였으며,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연습했기 때문이다. 그래도 예수님을 향한 나의 기도가 많이 미약한 것 같아 미안한 마음, 부끄러운 마음이 들기도 한다. “나는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기는 한 것일까?”하는 의문이 들기도 한다. 그런데 괜찮으니 기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당신을 사랑하는지 묻는 예수님께 드리는 사랑의 대답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우리들이 되면 좋겠다. 왜냐하면 기도, 하느님을 사랑하려는 노력과 연습은 우리 각자의 삶에서도 실질적인 실천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려는 실천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기도는 사랑의 연습이다. 사랑은 매일 연습하고 노력해야 한다. 사랑은 계속되는 시행착오를 통해서 끊임없이 배우고 익혀야 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언젠가 될지 모르겠지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는 예수님의 이 질문에 베드로처럼 주저함 없이 당당하게 대답하고 싶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때까지 예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연습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다. ☺

인간 핵 실험



지구촌 기획실에서 새로운 안을 만들어 내기에 바쁘듯이 악마촌 기획실 또한 머리 짜내기에 여념이 없다. 인간들에게 ‘날마다 좋은 날日日是好日이기를’이라는 인사말이 있다고 하자 그들은 ‘날마다 나쁜 날日日是惡日이기를’이라는 인사말을 만들어 냈다. 이들은 얼마 전에 인간 세상에서 환경 공해를 막기 위해 떠들썩하다는 소식을 접하고는 ‘환경 공해 촉진팀’을 따로 만들기로 했다. 이 ‘환경 공해 촉진팀’에서는 인간들이 ‘후손과 함께 살아가야 할 우리’라는 환경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고 하자, ‘지금 나만’이라는 생각 세균을 개발하기도 하였다.



악마촌 기획실에서는 최근 인간들의 여론 조사를 훔쳐내 보았다. 그랬더니 ‘핵’ 문제가 최근 관심사로 급부상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들은 부랴부랴 ‘핵 개발팀’을 창설하였다. ‘핵 개발팀’의 연구는 날 새는 줄도 모르고 진행되었다.

거짓, 교만, 시기, 불신, 불만 중에서 어떤 것을 주원료로 쓸 것인지 비교 검토가 마침내 끝났다. 드디어 인간의 심성을 파괴시키는 ‘핵’ 개발이 완료되었다. 주원료는 불신. 문제는 이 핵 실험을 어디서 하느냐는 것이었다.

어떤 악마 연구원은 종교 집회장을 택하고자 하는가 하면 어떤 악마 연구원은 학교를 또는 정부 기관을 택하자고 하기도 했다. 악마촌의 원장은 ‘핵 개발팀장’을 불러서 지시했다. “우리들의 핵 실험을 인간들의 기초 단위인 가정에다 해보시오. 가정의 파괴는 곧 인류의 파괴를 가져오게 될 테니까.”



혹시 당신 가정이 이 핵 실험장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



“신곡2동 라움 청소년부의 부활맞이”

안녕하세요~신곡2동 성당 라움 청소년부입니다!*^^*

라움 청소년부에서는 사순시기 동안 주님의 수난과 부활을 생각하며, ‘물동이’로 교리를 진행하였습니다.

함께 공부한 ‘물동이’는 돌아오는 부활대축일 미사에서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봉헌하려고 합니다. 또한 주님수난성지 주일을 보내며 십자가의 길을 함께 바치고, 우리의 생활을 돌아보고 잘못과 어려움들

을 고백하는 시간을 갖기도 하였습니다. 라움 청소년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부활을 기다리는 사순시기 동안 함께 공부하고 생각했던 것들을 잊지 않고 일상에서도 주님의 뜻 따라 기쁘게 살기를 바래봅니다.

부활을 축하합니다! 라움 청소년부 사랑합니다!❤️❤️❤️





제9회 생명 주일 담화

인간에게 봉사하는 과학 기술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인간 생명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는 제9회 생명 주일입니다.

1. 생명 주일에 인간 생명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긴다는 것은, 다름 아니라, 수정되는 순간부터 자연적인 죽음에 이르기까지 '살아 있는 모든 사람'의 소중함을 되새긴다는 뜻입니다. 사실, 이 세상의 모든 "기쁨과 희망, 슬픔과 고뇌"(사목 헌장 1항)는 살아 있는 사람의 것이며, 그 모든 삶의 체험을 통하여 하느님께 나아가는 이도 '살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분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을 하나도 잃지 않고 다시 살리는 것"(요한 6,39)을 당신의 사명으로 생각하셨듯이, 교회는 살아 있는 모든 사람이 귀하게 대우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되도록 힘써야 할 사명을 지닙니다.

2. 이번 제9회 생명 주일에는 특별히 현대의 과학 기술에 대하여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인간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하는 과학 기술은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에 직접 관련됩니다. 이러한 과학 기술은 인간에게 봉사하고 모든 사람의 이익을 위한 전체적인 발전을 촉진할 때에는 인간의 귀중한 자산(「생명의 선물」, 서론, 2항 참조)이 됩니다. 그러나 인간이 만든 과학 기술은 인간을 위하여 존재할 때에만 그 가치와 의

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과학 기술은 "인간과 인간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와 인간의 참되고 온전한 선(善)에 봉사하는 것이어야"(「생명의 선물」, 서론, 2항) 합니다. 과학 기술이 인간을 파괴하거나 도구화하는 것은 결코 용인될 수 없습니다.

3. 이러한 관점에서 무엇보다 먼저 경계할 것은 인간 배아에 대한 연구입니다. 일부 과학계에서는 인간 배아를 이용한 연구의 허용 범위를 확대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 배아는 한 인간의 첫 시기로서, 마땅히 존중과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살아 있는 인간 배아를 연구 재료로 삼는 행위는 어떠한 목적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이미 태어난 아기나 다른 모든 인격체와 마찬가지로 존중받아야 할 배아의 존엄성에 대한 범죄(「생명의 선물」, 1, 4항 참조)입니다. 따라서 과학계는 인간 배아 연구를 허용해 달라고 요구할 것이 아니라, 인간 배아를 사용하지 않고도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낼 수 있는 연구에 창의성을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4. 다음으로 생각할 것은 체외 수정입니다. 체외 수정은 남편과 아내의 몸을 순전히 생식에 필요한 생물학적 기능의 수준으로 취급하며, 이 기술에서 만들어지는 인간 배아 역시 임신 성공을 위하여 "쓸모 있는 것만 고르고 나머지는 처분해 버리는 세포 덩어리인 것처럼"(「인간의 존엄」, 14

항) 다릅니다. 그리하여 체외 수정은 남편과 아내의 인격적 의미와 부부의 인격적 결합을 배제할 뿐만 아니라, 한 인간의 탄생을 생물학적 조작의 산물로 만들어 버립니다. 따라서 체외 수정은 난임 부부들에게 희망을 주는 방법처럼 보일지라도, 부부의 일치와 자녀의 출산에 합당한 방법이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부부의 건강과 인격적 의미를 존중하며 자연 출산을 추구하는 나프로 임신법(자연 주기를 이용한 방법)이 좋은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5. 또한 인간에 대한 유전자 조작도 신중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최근에 이른바 ‘유전자 가위’ 기술로 인간의 유전자에 대한 개입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에 대하여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지난해에 중국에서 유전자 편집으로 쌍둥이 아기가 태어났다는 사실이 알려져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이처럼 과학 기술이 도덕적 한계를 존중하지 않을 때, 그것은 오히려 인간에게 두려움과 재앙의 원천이 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대의 유전학은 여전히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따라서 안전성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간의 유전자에 선불리 관여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선호하는 어떤 특성을 인간에게 부여하기 위하여 유전자를 조작하는 행위는 “일부 사람들의 뜻을 따라 머잖아 공동선을 해치는 데로 나아가게 될 것”(『인간의 존엄』, 27항)이기에 용인될 수 없습니다.

6. 끝으로 생각할 것은 인공 지능, 로봇 등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새롭게 등장하는 과학 기술입니다. 이와 같은 기술들은 산업, 의료, 학술, 군사 등 각종 분야에 적용되면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가능성을 열어 주는 동시에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인간이 더욱 인간다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인지, 아니면 인간됨의 본래 의미를 상실하는 길로 갈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류는 진정으로 새로운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강조할 것은, 서두에서 언급한 과학 기술의 본분입니다. 즉 과학 기술은 인간의 것이고 인간을 위한 것이며, 언제나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기술들을 개발하고 응용하는 분야에 있는 사람들은 단지 기능과 효율의 측면에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인간다운 삶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숙고해야 할 것입니다.

“불멸의 생명과 더불어 은총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모든 이와 함께하기를 빕니다”(에페 6,24). ☪

2019년 5월 5일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
위원장 이용훈 주교



제56차 성소 주일

2019년 5월 12일

하느님의 약속을 위하여
위험을 감수하는 용기

의정부교구 성소주일 “부르심 축제”

“주님 안에서 기쁨에 기쁨을 더하고” (이사야 29,19)

일시: 5/12(주일) (10시~17시)

장소: 신한대학교 베넬관 세미나실(1호선 망월사역 3번 출구)

대상: 의정부교구 예비신학생 전체 (중1~고3, 일반)

※ 16시에 교구장님 집전으로 미사가 봉헌됩니다.



교구장 동 정

5월	6(월)	14시	가톨릭동북아평화연구소 국내학술대회 - 신양교육원
	7(화)	20시	사목방문 - 법원리 성당
	11(토)	16시	성령대축제 미사 - 남양주체육문화센터



교구 소식

2019년 청년전례학교(기본과정) 안내

일시 6/1(토) 14시~6/2(일) 16시 (1박 2일) 장소 한마음청소년수련원 본관
 접수 4/4(목) ~ 5/15(수) 대상 의정부교구 청년 누구나(주일학교 청년 교사 포함)
 문의 청소년사목국 청년부 031-850-1460 <https://cafe.naver.com/youthujb> 공문 참조

성소후원회 미사

3,4지구 일시 5/8(수) 10시 장소 전곡 성당
 1,2지구 일시 5/10(금) 10시 장소 퇴계원 성당

의정부교구 성소주일 “부르심 축제”

“주님 안에서 기쁨에 기쁨을 더하고” (이사야 29,19)
 일시 5/12(주일) (10시~17시) 장소 신한대학교 뽕엘관 세미나실(1호선 망월사역 3번 출구)
 대상 의정부교구 예비신학생 전체 (중1~고3, 일반) 16시에 교구장님 집전으로 미사가 봉헌됩니다.

군중후원회 5월 월례미사안내

일시 5/15(수) 10시 장소 별내 성당(남양주시 송산로 121)
 대상 군중후원회원 및 관심 있는 모든 분 집전 김성현 안토니오신부(상승대성당 주임)

2019년 상반기 본당사회사목분과 연수

일시 5/26(일), 13시~17:30 장소 신양교육원
 마감 5/22(수)까지(연수비 1만 원) 대상 본당 사회사목분과장 및 위원(빈첸시오회 회원 가능)
 문의 사회사목국 031-850-1472 참조 자세한 내용은 4/18(목)에 게시된 교구 공문(사회19-128) 참조

의정부교구 법원 공시

아래 공시된 분은 5/20 (월) 까지 교구 법원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혼인으로 문의할 것이 있습니다.
 성명 정소희 라파엘라, 장 권 스테파노 문의 031-850-1507(주말, 공휴일 휴무)

제8차 의정부교구 ‘선택주말’(CHOICE) 안내

장소 한마음수련원 피정의 집 일시 6/28(금) 19:30~6/30(일) 18시 (2박3일)
 접수 4/21(일) ~ 6/9(일) 대상 20세~39세 미혼 젊은이 (선착순 40명)
 문의 청소년사목국 청년부 031-850-1460, <https://cafe.naver.com/youthujb> 공문 참조

제6기 한국교회사 강학회 수강생 모집

한국 교회의 시작인 천진암 강학회를 기억하며, 한국 교회사 강의 및 그룹 토의
 일시 6/29(토)~30(주일) 양일간 10시~17시 장소 신양교육원 /수강비 7만 원
 접수 ~5/24(주일), 선착순 40명 마감 문의 031-850-1498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미사 · 피정 ▶▶

2019 의정부교구 성령대축제

일시: 5/11(토) 09시~17시
 장소: 남양주 체육문화센터
 (경의 중앙전철 도농역, 서둘버스 운행)
 강사: 송용민 사도요한 신부(인천 가톨릭대 교수)
 양승국 스테파노 신부(살레시오회 관구장)
 미사: 이기현 베드로 주교님외 사제단
 준비: 티켓(5천 원) 및 개인 도시락 지참
 문의: 교구 성령기도회 010-8729-0025

8지구 영성피정/금촌성당

일시: 5/7(화) 12:30~16:30
 문의: 010-3495-8522
 강의.미사: 송병섭 신부(마리아 수도회)

말씀기도회(매주 월요일)

말씀기도회는 말씀을 통해 주어지는 구원의 신비를 관상하려는 소망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생생하게 체험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말씀기도회는 말씀을 통한 은총 체험의 장(場)이 될 것입니다.
 장소: 서울 강북구 삼양로 139나길 16-8 도미니코수도원(창동역에서 덕성여대 가는 버스 타고, 솔밭공원에서 하차)
 일시: (월)18시~21:30(5/6에도 기도회 있음)
 문의: 010-4884-7206 노경덕 신부

야곱 전국 성지순례. 전화: 02-755-3009

전주교구: 5/30-5/31, 광주교구: 6/19-6/20
 대전교구: 6/13-6/15, 원주출천: 6/28-6/29

성 도미니코선교수녀회 피정안내

성경완독피정: 5/24(금)~6/1(토) /48만원
 효소단식피정: 6/6(목)~9(일) /28만 원
 문의: 010-3340-0201

한국외방선교수녀회 성소자 피정

주제: 수녀님들의 선교체험 및 소소(昭昭)한 나눔
 일시: 5/18(토)~5/19(일)1박2일
 참제자마을 피정의집
 대상: 만35세 이하 성소에 관심있는 미혼여성
 문의: 010-3015-1773 /참가비: 1만 원

오상철 토마스 아퀴나스 신부 특강

일시: 5/8(수) 14시~15:30 미사
 주제: 냉담자가 늘고 청년이 성당을 떠나는 이유
 장소: 파티마 평화의 성당, 031-952-6324

성당 설립 4주년 및 후원자의 날 행사

일시: 5/6일 10시~14시 미사(점심제공)
 강사: 김연준 프란치스코 신부(11시~14시)
 장소: 파티마 평화의 성당, 031-952-6324

예수회 금요침묵피정

주제/강사: 겸손으로의 초대 /최준열 신부
 일시/장소: 5/10(금) 10시~15:10 /예수회 센터 /무료, 미사봉헌
 문의: 02-3276-7777(예수회 후원회)

예수회 월례특강

주제/강사: 믿음과 함께하는 평화의 삶 /송봉모 신부
 일시/장소: 5/15(수) 13:30~16:30 /예수회 센터(서울 마포구 서강대길 19)
 문의: 02-3276-7777 /무료, 미사봉헌

예수고난회 명상의집 6월피정

월피정: 6/1(토), 16(일), 23(일), 30(일)
 10:30~16:20
 1일성지순례: 5/22(수)작은재줄무덤, 산막 골성지, 6/26(수) 배론, 묘재성지
 시메온과한나(65세이상무료)피정:
 7/16(화)~17(수) /문의: 02-990-1004

성경통독 성체신심 치유피정

내용: 영육간의 건강과 자연치유력 회복을 위한 피정 /일시: 5/10(금)~13(월), 6/6(목)~9(일), 7/26(금)~29(월)
 피정지도: 토마스 신부(본원)
 장소: 도미니코수도원
 피정비: 36만 원(3박4일기준, 효소비 포함)
 문의: 010-9363-7784(신 글라라)

한국외방선교회 후원회미사

5/11(토) 10시 후곡 성당
 5/18(토) 9:50 주교좌 의정부 성당
 문의: 02-3673-2525

제주면형의집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도회수사들과 함께 제주성지.역사.평화순례, 미사(성무일도), 나눔, 올레길.오름 트레킹 (모든일정은 왕복항공권 포함해서 예약가능)
 기간: 5/10~12, 5/15~17(제주교구성모의밤), 5/19~22(추자도), 5/31~6/2, 6/10~13(추자도)
 접수: 02-773-1463/064-756-6009

가정선교회(부부나들이 피정)

주님 사랑 안에서 듣고, 깨닫고, 쉬고, 힐링되어가는 프로그램
 일시: 5/25(토) 14시~26(일) 17시
 장소: 아론의 집
 강사: 홍성남 신부, 한철호 신부, 이현주 회장, 이성호 박사, 이요셉 소장, 김미희 강사
 회비: 1부부 15만 원(비신자, 냉담자도 환영)
 입금: 신협 131-020-141399 천주교서를 대교구(입금 후 연락요)
 찬미: 고영민 단장, 손현희
 준비: 미사, 수건, 치약, 개인컵, 편한 신발
 문의: 010-4204-1522 /02-777-1773

매듭을 푸시는 성모님과 함께하는 피정

일시: 매주(화)10시~14시 미사(점심제공)
 장소: 파티마 평화의 성당, 031-952-6324

수도생활체험 피정

일시: 5/18(늦은7시)~5/19(늦은13시)
 장소: 스승예수제자수녀회(서울미아리본원)
 대상: 성소를 찾는 35세미만 여성
 신청: 010-9816-0072, 회비: 1만 원

제주 성 이시돌 자연 피정

대상: 개인, 가족, 본당 단체 등
 문의: 064-796-9181
 일시: 5/14~17, 5/19~21, 5/23~26, 5/29~31, 6/10~12, 6/14~16

예수마음기도영성수련(권민자 수녀)

1박2일: 5/25~26, 6/15~16
 3박4일: 6/6~9, 7/11~14
 8박9일: 6/24~7/2, 8/7~15
 40일: 6/17~7/26, 9/16~10/25
 장소: 문산 예수마음피정의집
 신청: 010-4906-5722 031)953-6932

서울 삼성산 2박3일 무료 치유 대피정

내용: 성시간, 매일미사, 찬양 및 강의
 강사: 황인수 이냐시오신부 외 전국 유명 강사
 일시: 5/10(금) 18시~5/12(일) 15시
 장소: 삼성산 피정의 집
 문의: 010-3353-4123



교육 · 모집 ▶▶

가톨릭동북아평화연구소 2019 열린세미나

주제: “국제NGO에서 바라본 오늘의 북한과 남북 교류의 방향”
 일시: 5/6(월) 오후 2시~6시(미사포함)
 장소: 신앙교육원(의정부교구청 경내)
 문의: 031-941-6238, 010-9960-5820

교하성당 반주자 모집

교중미사 성가대 반주자 모집
 이력서 제출 후 개별 면담
 문의: 성당 사무실 031-948-9064

법원리 성당 반주자 모집

내용 신부님 추천서 1부, 교적 1부
 문의: 031-958-0811(마감 5/26)

금촌2동성당 교중미사 반주자 모집

문의: 김 요셉 010-3776-1207

강화꽃동네노인요양원 요양보호사 모집

근무: 주 40시간 /기숙사 가능
 문의: 032-930-8500~3

한마음청소년수련원 야외활동 참가 가족/단체 모집
가족과 함께하는 즐거운 주말!(운영기시 6~7월), 한마음가족캠핑(1박2일), 한마음오리엔티어링 교실(1일), 주일학교 야외체험 활동(운영기시 3~11월)캠핑야영, 오리엔티어링(보물찾기), 첼린지코스/집라인 체험
문의: 031-840-0742(홈페이지 참조)

타우영성심리상담소(문의:010-3419-5604)
개인심리상담(불안,우울,분노,스트레스,관계&성격), 부부및가족상담, 청소년상담, 신앙및영성상담. 수도자심리상담전문가, 상담심리박사 직접상담
장소: 일산 탄현역 5분거리

생활속의 이나시오 기도모임 모집
기도여정을 통해 복음의 관점으로 나를 이해하며, 가슴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복음 상상기도에 관심 있으신 분들 대상입니다.
첫모임: 오전반 5/13(월) 10시
오후반 5/14(화) 20시
장소: 중산 성당 203호
문의: 010-9950-9974

관상기도 배우기(제19차) 선착순 30명
"하느님과 깊은 일치를 이루는 기도를 배우고 싶으신 분"(회비무료)
일시: 5/7(화) 14시~16시(6주간)
장소: 행주 성당 /문의: 031-974-1728

사별가족을 위한 프로그램 트랙 3기 모집 안내
대상: 사별을 경험한 가족으로 도움을 받고자 하는 분 /일시: 5/25(토)~7/13(토) /매주(토) 14시~17시(8회) /장소: 성 바오로 가정호스피스센터(남양주시 불암산로99)
문의: 010-8985-9971, 031-575-9971

여성긴급전화 1366 지역 자원활동가 모집
여성긴급전화 1366 경기북부센터 지역 자원활동가 모집 및 교육 실시 일시: 5/14(화) 14시~17시 교육비: 무료
문의: 031-873-1368, www.ggbb1366.or.kr

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2019 후기 신입생 모집
전공: 독서, 상담, 한국어교육, 유아, 진로진학상담, 특수, 직업특수, 평생
모집: 5/7(화)~19(일)
면접: 5/24(금) 18:30~
문의: 02-2164-4173,4176,4787
https://ged.catholic.ac.kr

의정부성모병원 호스피스자원봉사자 모집
대상: 호스피스에 관심이 있는 봉사자
장소: 의정부성모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병동
문의: 031-820-7003

단종독사목위원회 무급자원봉사자 모집
대상: 가톨릭에서 영세받은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
활동: 서울역 쪽방 방문진료
장소: 단종독사목위원회
신청: 단종독사목위원회(02-364-1811~2)

일반인을 위한 호스피스 교육
일시: 6/14(금)~15(토) 오전9:30~오후 5시
장소: 포천 모현의료센터 교육관
모집인원: 선착순 35명
회비: 무료
문의: 031-536-8998

예수살이공동체 제자교육(33기)
일시: 6/6(목)~9(일)
장소: 상지피정의집(서울 성북구)
대상: 35세 이상 천주교신자 (회비 17만 원)
내용: 소비자회에서 그리스도 따르기, 일상에서 거듭나기
접수: 02-3144-2144

성공로반외방선교회 젊은이 선교체험(대만)
일정: 8/1(목)~8/6(화) 5박6일
대상: 만(19세~35세), 청년 남녀 15명
경비: 100만 원(항공료 포함)
신청: 02-953-0613 /마감: 6월 중순

가회동성당 묘지관리인(계약직) 모집
업무:교양시 덕양구 대자동 소재 묘지관리업무
대상: 세례받고 3년이상, 묘지관리경험자 우대
서류: 응시원서(서울대교구홈페이지 aos.catholic.or.kr 직원모집안내내에서 다운로드 - 이력서, 자기소개서), 교적사본, 본당신자확인서 /접수: 5/19(일)까지 방문 또는 우편 접수(서울시 종로구 북촌로 57)
절차: 서류심사 후 면접일자 개별통보

골롬반 평신도선교사 관심자모임(해외선교)
일시: 5/12 13시~17시
대상: 만19세~만38, 남녀
장소: 서울가톨릭신학교(해화동)
문의: 02-929-4841, www.columban.or.kr

안내 · 기타 ▶▶

김수환 추기경 선종 10주년 기념 공모전
김추기경님의 생명존중정신을 이어가기 위한 생명나눔·생명존중 공모전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기간: 5/1~9/30 (웹하드, 우편접수)
분야: 포스터, 글짓기, 슬로건, 웹툰, 동영상 등
공모 방법: obos.or.kr 참조
주관: 한국평협,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제주도 관광안내
제주대전기사사도회에서가족,효도단체 관광및성지안내차량,호텔,팬션,골프,예약가능
문의: 064-758-6476, 010-4566-6476

가톨릭신문 성지순례
5/23 이스라엘, 이탈리아 12일 448만원
6/2 터키, 그리스 13일 395만원
6/12 발칸반도(메주고리예) 12일 375만원
6/15 이스라엘 9일 360만원
문의: 02-2281-9070 / www.cttour.org

라파엘여행사 02-778-8565
6/4, 9/17 이스라엘,요르단10일 289만 원
9/9 추석특선 성모님발현10일 335만 원
9/11 추석특선 이태리일주 10일 299만 원
6/23, 9/1 나가사키4일 949,000원

한국 예수회 후원회 해외 성지순례
6/3 발칸반도 및 메주고리에 11일 370만 원
7/1 아일랜드, 스코트랜드. 영국 12일 480만 원
8/17 성모발현성지 4개국 13일 390만 원
문의: 02-722-8366(크로바여행사)

제 54차 아일랜드 영어연수
초.중.고: 7/21~8/10(3주)
대.일반: 6/30~8/11(6주)
공통: 세계 연수생들과 연수 + 다양한 경험
설명회: 5/11(토) 2시 명동성당내 가톨릭회관 2층 강당
후원: 원죄없으신마리아 교육선교수녀회
문의: 그린피시아이엔티 02-3446-4253

미국 가톨릭 사립학교 9월 정규입학 모집
대상: 초5~중3, 기간: 단기(1년), 장기(1년 이상)
그리스도의 레지오 수도회 운영 미국 학교법인
문의: 2258-8983 oakinternational.co.kr

성 소 모 임	수도회명	일 시	장 소	문 의
	살레시오회	5월25일(토)~26일(일)	서울 신길동 돈보스코 청소년 센터	010-5159-3949



고해성사(4) :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기신 하느님에게서 옵니다.”(2코린 5,18)

왕태언 요셉 신부 | 신앙교육원 부원장

사제 역시 별다를 것이 없는 인간인데도 어떻게 ‘하느님의 용서’를 전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고해성사에 있어서 신자들이 갖는 의문 혹은 의심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실 고해성사의 집전자인 사제는 자신의 능력으로 ‘죄의 용서’를 선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해사제는 하느님의 용서를 마음대로 다루는 주인이 아니라 종입니다. 이 성사의 집전자는 그리스도의 뜻과 사랑에 결합되어 있어야 합니다. 고해사제는 진리를 사랑하고 교회의 교도권에 충실해야 하며, 고백하는 사람을 치유와 완전한 성숙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그는 고백자를 자비로우신 주님께 맡겨 드리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속죄해야 합니다.”(가톨릭교회교리서 1466항)

신자들의 죄를 듣는 것은 특별한 권한이나 권리라기보다는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해 아파하는 이들에게 하느님의 위로를 전하고 회개의 길에 동행하며 신자들이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를 깨닫도록 이끄는 복된 멩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복된 이유는 하느님께서 전하는 용서의 은총을 전할 수 있기 때문이며, 그것이 멩에인 이유는 죄인으로서 겪는 인간적인 후회와 아픔을 함께 느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사도에게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

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마태 16,19)라는 말씀으로 맡기신 그 열쇠의 권한은 스스로 용서의 주인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과 화해하고자 하는 많은 이들을 위해 충실하고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해성사를 거행할 때 사제는 잃어버린 양을 찾는 착한 목자, 상처를 싸매 주는 착한 사마리아 사람, 탕자를 기다리다 맞아들이는 아버지,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공정하고 자비로운 판결을 내리는 의로운 재판관의 직무를 다해야 합니다. 한 마디로 사제는 죄인에 대한 자비로우신 하느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표지이며 도구입니다.”(가톨릭교회교리서 1465항)

그러므로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당신의 죄를 용서합니다.”라는 사제의 사죄경은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전하시는 용서와 화해의 메시지이며, 이를 전해 듣는 신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끊어버리고 하느님의 자녀로서 새롭게 살아갈 희망과 용기를 갖게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것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당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기신 하느님에게서 옵니다.”(2코린 5,17~18) ☺